10.15686/fkl.2022..56.454

치유-폭력을 횡단하는 여성주의 장애학 문화비평

: 김은정, 강진경·강진영 역,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 후마니타스, 2022

장은애
국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1 '접힌 시간' '접힌 공간'이 가둬둔 이야기들

불과 얼마 전 일인데, 내가 연루된 어떤 사건에 대하여 그것을 어떻게 의미화하면 좋을지 알 수 없어 의미의 공백으로 남겨두었던 어느 경험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글을 시작해보려고 한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학교에 가기 위해 전철에 막 탑승하려던 참이었다. 마침 출입구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서 모녀로 보이는 일행이 내리려 하고 있었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어 보였다. 모녀 중 딸로 보이는 사람이 휠체어에 타고 있었는데, 휠체어 바퀴가 플랫폼과 열차 사이에 걸려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이다. 중년의 여자가 휠체어를 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힘에 부쳐 보였다. 이를 목격한 나는 다가가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고 플랫폼 쪽으로 당겼다. 전철에서 내린 모녀는 감사의 인사를 했다. 나도 따라서 어색하게 고개를 주억거렸다. 모녀가 떠나고 나는 객차의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전철 안은 한산했다. 나는 방금 전 마주친 모녀를 생각했다. 그러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졌다.

당시에도 그랬지만 겉으로 보기에 별로 문제 될 것 없어 보이는 이 경험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곤 한다. 그런데 김은정의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이하 『치유』)[1]은 이런 내 감정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탐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 같다.[2]

---

1 김은정, 강진경·강진영 역,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 후마니타스, 2022. 이하에서 이 책을 인용할 경우 괄호 안에 쪽수만 표기함.

2 내가 전철에서 마주쳤던 그날의 사건으로부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또 다른 계기는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 이후 21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다. 이를 주도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최근 '출근길 지하철 타기 운동'을 전개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 내지는 혐오를 마주하면서 나 또한 스스로를 반성적으로 돌아볼 수 있었다. 또한 장애 문제에 있어서 나의 역할과 책임에 관해 생각하면서 모녀와의 만남을 의미화할 수 있었다. 이에 동료시민으로서 전장연의 투쟁에 우정과 연대의 마음을 표하고자 지면을 할애하는 것을 저자 또한 너그럽게 이해해 주리라 생각한다.

가령 『치유』에서 장애에 관해 사유하는 대목을 보자. 『치유』에 따르면 "'장애'는 부정적으로 여겨지고 열등한 것으로 취급되는 몸의 특성, 질병이나 이상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차이들을 광범위하게 지칭"(55)하는 것이며, 이러한 "차이들은 특정한 역사적·문화적 맥락에서 인종 혹은 민족, 성별에 따라 구성된 인간다움에 대한 기준에서 벗어난 상태를 포함"(55)한다고 지적한다. 즉 '장애'란 어떠한 실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론적이고 정치적인 용어이며, 특히 "어떤 몸의 특성들이 어떻게 전반적인 문제로 여겨지는지 드러내기 위해 사용"(55)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장애가 차이나 문제를 의미하고 '인간다움'에 미달하는 어떤 다른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서 유통될 때 장애의 현존성은 무시되고 장애를 가진 존재는 타자화된다.

다시 그날의 전철로 되돌아가 보자. 그날 내가 한 행동은 표면상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도움을 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날 내 행위의 본질은 전철 탑승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눈앞에서 치우려던 것 아니었을까? 그도 그럴 것이 나는 당황한 모녀에게 다가가 휠체어의 손잡이를 잡고 내 쪽으로 끌어당기기까지 혹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지 않았다. 어째서 나는 모녀의 의사를 물어볼 생각조차 못했던 것일까? 내가 휠체어에 앉은 사람을 나와 같은 인간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모녀가 나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을 때 원인도 모른 채 당황했던 것은 대상인 줄 알았던 그들이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은 아닐까?

장애를 둘러싼 이와 같은 인식과 태도는 외견상 타자를 향한 관용으로 보이는 행위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배제의 형식에 의존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지젝의 지적을 떠올리게 한다.[3] 이 책의 주제인 '치유'도 마찬가지이다. 『치유』는 치유가 언뜻 장애인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징적·담론적·실제적 폭력이 서로 얽혀있는 폭력의 교차점임을 지적한다. 더불어 『치유』는 치유 드라마가 "정상적인 과거로 현재를 대신하고, 동시에 특정한 종류의 정상적인 미래를 현재에 투영시킴으로써"(23) 치유가 장애의 현존을 지워버리는 폭력 그 자체가 될 수 있음

3 지젝은 "타자를 인정하지만, 이 타자의 존재가 우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만, 그러니까 이 타자가 진정한 타자가 아닌 한에서만 그럴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한 상황을 가리켜 자유주의적 관용의 태도라고 비판한다(슬라보예 지젝, 이현우·김희진·정일권 역, 『폭력이란 무엇인가—폭력에 대한 6가지 삐딱한 성찰』, 난장이, 2012, 75쪽).

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처럼 치유가 약속한 낙관에 매달리는 동안 현재가 유예되는 것을 '접힌 시간성folded temporalities'이라고 명명하면서 "장애화된 몸은 접힌 시간 속에서 다층적으로 구성된 타자성과 정상성의 경계로 이뤄진 지형 안에서 시각화되고 서사화"(30)된다고 설명한다. 요컨대 치유가 장화화된 몸에 관해 이야기하는 주된 방식일 때 장애화된 몸은 영원히 타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전철 장면으로 되돌아가 보자. 그날 전철에서 내가 했던 행동도 치유를 중심으로 장애화된 몸을 인식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치유 드라마에서 장애를 가진 몸은 '정상적'이고 '규범적'인 인간에 못 미치는 존재로 그려진다. 또한 장애를 가진 몸들은 접힌 시간이라고 불리는 고립된 시간성 속에 그 존재를 속박당한다. 그랬을 때 치유는 정상과 비정상, 장애와 비장애를 분할하는 정치를 작동시켜 장애화된 몸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에 대한 알리바이를 제공한다. 그런 의미에서 치유는 장애화된 몸에 대한 일종의 "물신주의적 부인"[4]을 작동시킴으로써 사실상 장애를 가진 몸을 비가시의 영역으로 밀어내는 동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치유』가 치유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2 장애의 계보학 혹은 교차성에 관해

『치유』가 분석의 대상으로 다루는 방대한 텍스트는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장애에 대한 폭력적 시선과 태도를 반복적으로 재생산해 왔는지 보여준다. 그런데 장애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치유』는 계보학적 접근을 통해 장애의 역사적 맥락을 환기함으로써 장애를 개념화한다. 그랬을 때 장애란 단일한 형상으로 규정지을 수 없으며 복잡한 사회·역사·문화적 맥락 속에서 구성된 것임을 알게 된다.

특히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가부장제, 계급, 젠더 위계, 이성애 중심주의, 우생

4 지젝은 '물신주의적 부인'의 제스처가 "자신이 본 것을 망각"하려는데서 나온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물신주의적 부인의 정신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는 안다, 하지만 내가 안다는 것을 알고 싶지 않다, 그러므로 나는 알지 못한다"는 부정에 대한 순환 논리로 표현된다고 설명한다(위의 책, 89쪽). 이를 고려한다면 장애 치유의 의무를 장애 당사자한테 전적으로 맡겨놓은 상황은 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물신주의적 부인을 드러내는 것임에 다름 아니다.

학,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60년대 권위주의 독재정권, 7,80년대 군사정권, 냉전질서, 자본주의 시장질서,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 장애의 내용과 양식을 형성하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여러 국면을 종횡무진 누비며 장애의 형성과정을 추적하는『치유』의 시도는 무척이나 흥미롭다. 이 작업을 통해 우리는 장애가 어떤 특정한 사태와 독점적인 관계를 맺으며 단일한 개념으로 정착한 것이 아니라 여러 복잡한 맥락과 사건이 교차하는 가운데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치유』는 "현재의 담론들을 과거의 재현물들에서 추적하고, 반대로 과거의 재현물을 현재의 담론과 연결하는 작업을 통해, 일탈적이며 문제적으로 만들어진 몸에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이미지들 속에 나타나는 전환과 저항, 그리고 그 계보"(53)를 살피는 것이 저술의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이처럼『치유』가 장애를 개념화하는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장애의 교차성을 인식할 수 있게 도와준다. 어떤 하나의 증상이나 상태가 장애로 고착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역사적 사건과 정치적 계기와 문화적 이미지가 우연으로서 개입하는지 설명하는『치유』의 유려한 논증을 따라가다 보면 각각의 장애마다 다양한 맥락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치유』는 어떤 상태가 장애라고 규정될 경우, 그러한 장애는 그 자체로 현실 사회를 구성하고 의미를 낳는 하나의 실재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치유』는 장애를 재현하는 다양한 재현물을 분석하면서 장애가 일종의 은유로 동원되는 현상에 천착하는데, 이를 통해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장애에 대한 담론이 확대 재생산되고 종국에는 특정한 방식으로 장애의 이미지가 고착화한다는 사실을 간파해낸다. 그중에서도『치유』는 김기덕의 영화 〈수취인불명〉 분석을 통해 70년대 세계적인 냉전질서를 배경으로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과 관계를 맺은 여성을 시각장애인으로 설정하여 장애를 훼손된 국가의 은유로 환원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미군을 상대로 성노동하는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사회적 장애"(225)를 가진 존재로 취급함으로써 어떤 상태가 특정 상황 속에서 장애가 되고 그렇게 생성된 장애의 이미지가 사회적 낙인으로 고착화해 가는 역사적 맥락을 살핀다.

이상은 장애를 은유로 유통하고 소비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촉발하는데, 이 같은 성찰은 수전 손택이 질병을 사유했던 방식을 경유함으로써 한층 더 정

교해질 수 있다. 손택은 먼저 "질병이 은유가 아니라는 점"[5]을 강조하면서 『치유』에서도 종종 언급되는 HIV에 대해 "수사학을 통해 이 질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즉 각종 주장이나 상투어구를 통해 이 질병을 자기 것인양 소화된 사람들과 어떻게 싸우느냐에 개인의 경험과 사회의 정책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오래 전부터 질병에 온갖 의미(가장 깊은 두려움을 나타내 주는 의미)를 부여하고 고통스런 낙인을 찍어 왔던 이런 무자비한 과정에 맞서 싸운다는 것은 언제가 됐든지 가치가 있는 일이다"[6]라고 말하는데, 이는 장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치유』가 다루는 장애의 범주가 너무도 광범위한 까닭에 장애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없어 언뜻 다소 혼란스럽기도 하다. 정신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한센병, HIV 등 『치유』가 장애라는 개념으로 포괄하는 것들은 잠깐만 훑어봐도 제각각 내용과 형식이 다 달라서 통일된 하나의 개념이나 이론으로 포착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이처럼 장애를 정식화하기 어려운 배경에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정상성과 규범으로 규정하고 그 반대편에 장애를 배치함으로써 끊임없이 장애를 양산해 온 폭력의 역사가 어지럽게 교차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덧붙여 이와 같은 인식을 장애를 사유하는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것은 지배 이데올로기와 연결된 정상성과 규범성에 관해 비판적으로 성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까닭에 『치유』는 그 자체로 장애에 대한 실천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치유'는 어떻게 '폭력'이 되는가

『치유』는 '치유'가 상징적·실제적 차원에서 장애를 구속하는 억압의 기제로 작동하는 양상을 추적한다. 『치유』는 치유가 폭력이 되는 다양한 경우를 살피는데, 먼저 '치유'가 장애화된 몸에 가해지는 실질적인 '폭력'이라는 사실은 그것이 기존의 장애를 변형시키거나 새로운 장애를 만들어냄으로써 장애 당사자로 하여금 변형된 새로운 몸에 적응하도록 강제한다는 사실을 통해 드러난다. 결국 이러한 통찰은

5 수전 손택, 이재원 역, 『은유로서의 질병』, 이후, 2010, 15쪽.

6 위의 책, 238쪽.

치유를 통한 정상성 획득이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허구적 상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폭로한다.

많은 경우 치유는 위험을 수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치유가 그것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감행할 만큼 큰 이득을 준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치유』가 지적하듯, "이득인지 손실인지에 대한 판단은 민족적·인종적 경계 및 국가적인 경계 안에서 정상적인 인간다움, 젠더 순응성, 이성애 수행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미 왜곡"(36)되어 있다. 이렇듯 『치유』는 치유라는 개념이 중립적이지도 탈역사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치유가 장애화된 몸을 기존의 규범성에 맞게 폭력적으로 변형시키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언급한다.

한편 『치유』는 "치유가 장애의 존재 자체를 문제로 규정하고 치유 과정에서 그 대상을 파괴"(38)하는 상황을 '치유폭력curative violence'이라는 개념으로 포착한다. 이처럼 장애를 극복해야만 하는 부정적인 상태로 파악하는 인식은 장애의 현존을 가리는 장막으로 작용하여 실질적인 논의를 가로막는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이는 "정상적인 과거로 현재를 대신하고, 동시에 특정한 종류의 정상적인 미래를 현재에 투영시킴으로써 현재를 사라지게"(23) 만드는 장애의 시간성 속에 장애화된 몸을 고립시키는 폭력이다.

치유는 "장애 범주에 속한 몸을 정상 범주로 이동시킬 것"(29)을 약속하면서 장애와 함께하는 현재의 삶을 유예하도록 만든다. 그런데 사실상 그러한 약속은 지켜질 수 없다. 이는 치유가 작용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분명해지는데, 장애를 치유한다고 할 때 치유의 과정은 치유의 대상인 장애가 "먼저 인지되고 변형되고 부정되는 과정"(29)을 거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가 치유되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에도 장애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의 형식으로서 계속해서 잔존한다.

이처럼 치유가 폭력이 되는 양상은 특히 『치유』의 2장. **대리치유**와 4장. **머물 수 없는 곳, 가족**에서 다른 인접 주제들과 만남으로써 한층 더 흥미로운 논의를 촉발한다. 먼저 2장에서는 가족 중심주의라는 한국의 특수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장애가 단순히 장애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로 자리매김하는 양상을 살펴보고, 비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장애 치유의 의무를 지게 되는 상황을 '대리 치유cure by proxy'라는 개념으로 포착한다. 그랬을 때 대

리 치유의 의무를 짊어진 장애 대리인은 “장애인의 욕구를 대변하기보다 강제적 정상성compulsory normality의 시스템을 강화하고,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임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며, 이와 동시에 장애인을 이러한 노력의 보상을 받게 되는 수동적인 대상”(141)의 자리에 위치시킨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장애 치유의 의무를 전가하는 이와 같은 인식은 장애에 대한 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성찰하는 질문을 차단하고 장애 당사자와 장애 가족을 공동체로부터 고립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한편 한센병을 주로 다루는 4장에서는 치유가 우생학, 60년대 국가주의, 일본의 식민정책, 근대적 합리성에 대한 신화적 믿음, 치유 가능성 등과 복잡하게 얽혀 한센병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여기서 『치유』는 “질병의 낙인을 없애기 위해 완치 가능성에 의존하는 것은 “규범적 폭력”에 해당”(272)한다고 지적하는데, 한센병의 경우 그것은 성형수술을 통해 외형상의 “정상성을 복원”(294)함으로써 “치유의 가시성”(297)을 추구하는 형태로 드러난다. 한편 국가는 한센병을 관리함으로써 통치성을 발휘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주로 ‘건강한’ 사람과 한센인의 적대적 구도를 설정하거나 한센인에 대한 미신과 공포를 조장하고 감염이 우려가 있다고 여겨지는 한센병을 효율적으로 통제[7]하고 고립시키는 등의 폭력적 방식을 통해 실현된다.

치유가 폭력이 되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장애의 현존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존재 탐색의 출발점으로 삼은 여러 사례들은 우리에게 치유의 폭력성에 대항하기 위한 힘과 지혜를 전해주는데, 여기서는 선천적 뇌병변 장애인이자 젠더퀴어이고 페미니스트인 일라이 클레어의 선언적인 목소리를 『치유』의 문제의식에 포개보고 싶다.

---

7 사실 한센병이 유전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28년에 언론을 통해 한국에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한센병 치료제인 설폰제인 답손이 1940년대 개발되었으며, 1995년부터는 전 세계에서 한센병 치료에 효과적인 다제요법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더해 WHO는 2001년에 전 세계적으로 한센병이 퇴치되었다고 선언한 바 있지만(김은정, 강진경·강진영 역,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 후마니타스, 2022, 270-271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한센병은 여전히 사회적 낙인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한센병 환자는 기피 대상으로 여겨진다.

> **퀴어**와 **불구자**는 사촌관계이다. 충격을 주는 단어, 자긍심과 자기애를 불어넣는 단어, 내면화된 혐오에 저항하는 단어, 자긍심과 자기애를 불어넣는 단어, 내면화된 혐오에 저항하는 단어, 정치를 구축하도록 돕는 단어. 많은 게이, 레즈비언, 바이, 트랜스가 **퀴어**란 단어를, 많은 장애인이 **불구자** 혹은 **불구***cripple or crip*란 단어를 기꺼이 선택했다.[8]

4 여성주의 시각으로 장애를 본다는 것

『치유』는 장애를 논의함에 있어 여성주의적 관점을 취한다는 점에서 무척 흥미로운 기획이다. 『치유』의 논의를 따라가다 보면 여성주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 장애를 이해하는 유효한 접근방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장애에 관한 이야기가 차별과 억압에 당면한 이들의 소수자성에 관한 이야기와 연속선상에 있음을 이해한다면 여성주의 관점을 교차시킴으로써 장애에 관한 논의를 보다 더 정교하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데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여성이기 때문에 한층 더 복잡하고 강도 높은 폭력에 노출되는 상황이 있다고 『치유』는 말한다.

『치유』에서 이상의 문제의식이 돋보이는 장은 1장. **낳아서는 안 되는 장애**, 3장. **사랑의 방식이라는 폭력**, 5장. **치유로서의 성경험**이다. 각각의 장들은 여성-장애를 중심으로 그것이 돌봄, 식민지 근대성, 국가폭력, 개발주의, 우생학, 계급 등의 이데올로기와 어떠한 방식으로 교차하고 순환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억압과 폭력을 낳는지 살펴본다.

그중에서도 1장. 낳아서는 안 되는 장애에서는 사랑에 기반한 낭만적 결혼이라는 근대적 결혼관과 근대의 또 다른 레짐인 우생학 원칙에 따라 건강하고 이상적인 배우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상반된 요구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긴장의 서사를 '유전 드라마heredity drama'라고 칭하고, 그 가운데 타자화되는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재생산 문제를 다룬다. 『치유』는 유전 드라마 속에 국가가 장애여성의 재생산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착취하는 정치적 수사가 투영되어 있음을 간파한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장애여성의 재생산 능력과 섹슈얼리

8 일라이 클레어, 전혜은·제이 역, 『망명과 자긍심』, 현실문화, 2020, 157쪽.

티를 억압해 온 폭력의 역사를 조망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한편 『치유』는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재생산 문제를 언급하면서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 및 재생산 문제가 획일적인 결론으로 환원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예를 들어 장애여성의 임신중지 문제는 여러 가지 사안이 복잡하게 중첩되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하는데, 장애여성이 직면한 문제적 상황의 복잡성을 충분히 고려하고자 하는 이러한 접근은 장애에 관한 논의를 당사자 중심으로 재조직하고 대화와 연대의 장으로 옮겨오는 데 힘을 실어준다.

3장. 사랑의 방식이라는 폭력은 가장 직접적으로 폭력과 치유의 관련성을 다룬다. 이 장에서는 장애인을 치유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해지는 신체적 개입이 어떻게 폭력의 양상을 띠는지, 또 "온정적인 치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심리적·신체적 폭력을 통해 어떤 장애인은 포섭되고 어떤 장애인은 지워지는지"(203) 살펴본다. 이러한 목적하에 영화, 소설, 사진 등 각종 미디어 재현물에 투영된 폭력-치유의 다양한 관계양상을 분석하는 가운데, 특히나 눈길을 끄는 것은 최윤의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와 이 소설을 영화화한 장선우 감독의 「꽃잎」에 등장하는 미친 여자 형상을 한 소녀에 관한 분석이다. 『치유』는 정신 질환을 상징으로 이해하는 비평적 접근에 거리를 두면서 소녀의 정신장애를 "국가가 자행한 대규모의 정치적 폭력과 그것이 남긴 상처에 대한 집단적인 역사적 기억의 비유로 볼 수만"(237)은 없다고 지적하는 한편으로, 소녀에게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을 정신장애 여성들이 그들의 "치유 불가능한 비정상성과 젠더로 인해"(236) 공격당하고 치유적 개입이라는 명목으로 폭력에 노출되곤 하는 것과 연장선상에서 볼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치유』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소설과 영화의 결정적인 차이를 지적한다. 『치유』는 영화가 소설과 달리 미친 여자의 존재를 없애고 싶은/치유하고 싶은 충동에 내포한 폭력성을 민감하게 지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영화가 "국가 폭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기반으로 하는 젠더화된 일상적 폭력에 작동하는 권력을 삭제"(249)한다고 비판한다. 이처럼 『치유』는 장애와 치유가 미학적·상징적 대상으로 재현되는 과정에서 장애 여성에게 가해지는 실질적인 폭력을 은폐하거나 외면할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장애 재현 문제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촉구한다.

5장. 치유로서의 성경험에서는 섹슈얼리티의 층위에서 장애여성과 장애남성

의 현실이 다르게 구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내용상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 이 장의 전반부에서는 장애남성의 섹슈얼리티를 다루고 후반부에서는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다루는데, 이때 장애남성의 섹슈얼리티는 성욕에 대한 즉각적인 해소와 이를 위한 제도화된 서비스로 의제화하는 반면,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는 교정되고 억압되고 통제당하는 대상으로 다뤄진다. 그러나 한편으로 장애인의 섹슈얼리티를 시급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규정하는 이면에는 "비장애 중심적·성기 중심적·생물학적 이성애 규범에 기반한 성을 자연적인 것"(315)으로 전제하는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작 장애인들이 "친밀한 관계로부터 배제되는 과정에서 겪는 체계적인 차별"(328)이나 "장애인의 성적 다양성과 무성적 다양성"(328) 등이 논의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는 한다. 아울러 『치유』는 이상의 연장선상에서 성매매가 장애남성의 성적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대안으로 거론될 때 성산업에 종사하는 장애여성의 존재가 시야에서 사라져버린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처럼 『치유』는 장애여성과 장애남성 각각이 기존의 성별 위계에 따라 서로 상이한 억압과 폭력의 지평에 놓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편으로, 장애여성의 경우 그러한 위계 질서의 변두리에 자리매김한 까닭에 성적 실천과 자율성 면에서 한층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치유』는 이처럼 치유가 폭력으로 전화轉化하는 여러 국면들을 다루면서 한편으로 장애에 대한 윤리적 인식과 정치적 실천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데, 이 같은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때 비로소 장애/비장애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모두가 장애와 무관하지 않다는 감각을 환기하고 장애를 가둬둔 '접힌 시간'에서 벗어나 장애의 현존이 깃든 시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치유』는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장애 운동의 또 다른 한 축으로서 그 궤를 같이한다.

마지막으로 『치유』의 흥미로운 형식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글을 마치고 싶다. 나는 책을 다 읽은 뒤에 독서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치유』의 책장을 뒤적거리던 중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했다. 목차 다음에 위치한 〈표지 설명〉이라는 제목의 짧은 메모인데, 이 메모에는 시각의 제한이 있는 사람이 『치유』를 오디오북, 점자책, TTS(Text To Speech)로 접할 경우를 생각하여 책의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도록 책 표지에 대한 짤막한 설명이 적혀 있다. 나는 장애의 현존성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고민이 담긴 이와 같은 시도가 인상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가 장애를 인식하고 사유함에 있어 장애당사자의 삶을 치유라는 획일적인 기율 아래 두는 것과는 다른, 장애가 있는 몸을 상징과 은유의 대상으로 타자화하는 것과 구별되는 장애에 대한 주의깊고 진지한 접근방식이라는 점에서 반가웠다. 나는 내가 『치유』에서 발견한 이것을 장애의 존재론에 관한 사유와 실천으로 확장될 '정치'의 단초라고 이해했고, 저자라면 그것을 "장애의 현존을 인식하고 그 현존의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한"(75)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 같다.